

# 디지털 시대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 분석을 통한 시사점 고찰

이희승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Educational Implications of Media Education in the Digital Era in France

Hee-Seu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Tongmy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의 오랜 역사를 가진 프랑스 공교육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내의 미디어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미디어 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CLEMI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 미디어 교육의 기본 철학과 디지털 시대에 따른 진화를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법제적, 정책적, 교육적 차원의 준비를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함양'이라는 미디어 교육의 철학적 가치의 전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전적인 미디어 교육에 안주하지 않고 '정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으로 개념적 확장을 이뤄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육법제의 보완, 공교육 현장에서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시행, CLEMI라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 전담기구 운영 등을 통해 구현되었다. 향후 국내의 미디어 교육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 하에서 정부 주도의 전담기구 운영과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미디어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 프랑스, 미디어 교육, CLEMI, 프랑스 공교육, 디지털 미디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media education policy which is still in a state of pace by document research of the case in France which has a long history of media education. France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tradition of the philosophical value of media education, such as 'the cultivation of consciousness and qualities as a democratic citizen' through legal, policy and educational improvement. At the same time, in the digital era, conceptual expansion was carried out that embraced the concept of 'information' rather than resting on classical media education. This was complemented by education legislation, enforcing information education programs in school, and the manage of CLEMI, the media and information education training organiz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struct software system for media education of Korea through the manag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the cooperation system with related institutes under the constant philosophic direction.

**Key Words** : France, Media education, CLEMI, Public education in France, Digital media

\*This work was supported by Tongmyong University Research Grant(2018).

\*Corresponding Author : Hee-Seung Lee(cinelog@tu.ac.kr)

Received May 9, 2019  
Accepted June 20, 2019

Revised May 28, 2019  
Published June 28, 2019

## 1. 서론

과거와 현재의 미디어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미래의 미디어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 길지 않은 대한민국의 미디어 교육의 역사이지만 그 과거에 비해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는 분명 발전적인 과정과 결과이어야 함에도 딱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관한 많은 담론들이 학계나 시민단체들에서 양산되고 최근에는 학부모나 교사들도 논의에 가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방향성을 모색하는 노력은 답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같은 기관들에서 미디어 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일관된 방향성이나 프로그램의 체계성 그리고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은 타 국가들에 비해 멀리 어답터로써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첨단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인터넷, SNS 등으로 정보를 얻거나 소통하고 있다. 이는 자칫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왜곡된 것들에 노출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진국들은 뉴미디어 시대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감시망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한 미디어콘텐츠와 정보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보호주의적 전략만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미디어의 활용은 교육 현장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일례로 외국문화교육 같은 경우 미디어가 외국어 수업의 제한적 학습보조도구에 그치던 것이 문화 관련 영역으로 활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1]. 따라서 복잡다단한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미디어 수용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화시대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2]. 이런 점에서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콘텐츠와 정보를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함으로써 넘쳐나는 미디어와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이상적인 방안이다.

미디어 교육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프랑스는 현재도 공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여 미디어와 정보를 아우르는 개념적 확장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공교육의 미디어 교육 사례를 통해 트랜스미디어 현상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미디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적 방향성과 도구적인 진화를 고찰해본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 현장에서의 미디어 교육의 역사를 관통하는 교육의 철학을 살펴보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방법의 진화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 연수, 교육 자료 개발 등 프랑스의 초중고 미디어 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인 CLEMI(미디어와 정보 교육 연계 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는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아직 일관된 정책적인 방향과 견고한 교육내용을 갖추지 못한 국내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3. 연구결과

### 3.1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 정책의 철학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의 역사는 언론의 진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해왔다. 일찍이 프랑스대혁명 이전에 탄생하여 1820년대 황금기를 누렸던 청소년 저널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용도에 그치지 않고 언론에 대한 젊은 독자들의 비판능력을 키우고자 했으며, 이러한 전통은 1982년 유네스코가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그룬발트(Grünwald) 선언’ 이후 미디어 교육을 도입하는 계기로 이어졌다[3]. 1983년에는 미디어 교육 전문가 자크 고네(Jacques Gonnet)가 교육부 산하 CLEMI를 설립하고 공교육 내에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CLEMI는 프랑스 미디어 교육 구현의 중심에 위치하며 학생들이 매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매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언론 매체에 대한 비판적인 교육의 전통을 계승하는 미디어 교육 전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방편으로 미디어 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학교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제작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정보와 커뮤니케이

선의 기술을 숙달하게 하는 도구적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 미디어 교육을 통해 인본주의와 시민정신을 체화하게 한다는 철학적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교육 내에서의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 실천은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4]. 먼저, 영화, 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 모든 매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한다. 둘째로, ICT 활용교육과 영화와 비디오 제작 수업 등 미디어 제작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매체 생산물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미디어 교육이 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인 프랑스어와 역사 교과외의 교사들이 1980년대 말부터 적극적으로 미디어 수업을 위한 CLEMI의 연수를 받아 학생들에게 미디어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넷째, 2006년 교육부 법령에 따라 미디어 교육이 통합교과 형태로 필수 교육과정에 진입하여 다양한 교과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재와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개발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교과과정 내에서 교육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미디어를 통한 교육'과 미디어 활용 자체에 대해 학습하는 '미디어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5].

공교육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고 이를 돕는 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보조하고 있다는 점은 미디어 교육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정한 학령에서가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성과 연계성을 지니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미디어 교육의 효율적 운영의 절대적 요소이며, 나아가 미디어 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민주 시민의식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6]. 프랑스 공교육의 체계화된 미디어 교육과정과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 및 전담기구의 운영은 프랑스 사회에 배어 있는 철학적 전통과 문화적 실천의 힘, 그리고 일관된 정책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 3.2 디지털 시대 프랑스 미디어 교육의 진화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닥치면서 프랑스 정부는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디지털 문화 및 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일찍이 프랑스가 유지해온 미디어 교육의 철학적 전통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함양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이 모든 사회부

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기술이 효율적이고 성숙되게 활용되는 디지털 문화가 정착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7]. 이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활용기술이 복잡해지고 활용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디지털 활용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는 사회적 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당초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주로 학교 교육과정의 보조수단으로 여겨지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예술 제작 수업의 일환으로 영화와 비디오 제작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문화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정착되었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프랑스의 ICT교육 보급 정책이었다. 프랑스는 1970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교과 교육에 통합하고 정보를 획득·가공·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도입했다. 이러한 ICT교육에 대한 기조는 1998년 국가정보화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이어져, 그 일환으로 각 학교의 ICT교육을 장려하고 컴퓨터 보급과 전산망을 확충하며 관련 자격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5]. ICT교육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컴퓨터, 태블릿, 전자칠판, 와이파이 등 뉴미디어 기기들이 확산된 데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볼 수 있다. 뉴미디어가 정보의 생산, 소비, 유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붕괴됨에 따라 미디어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미디어 교육만으로는 디지털 기술에 따른 정보의 접근과 처리,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미디어 교육이라는 개념에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미디어와 정보 교육(IME)'이라는 개념적인 확장이 이뤄졌다[8]. 미디어와 정보 교육은 2014년부터 모든 중등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정보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 그리고 시민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3].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응용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10]. 또한 창조산업으로서의 ICT산업은 미래의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11]. 디지털 시대의 프랑스 미디어 교육도 ICT교육을 통해 뉴미디어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서도 아날로그 시대에 견지해왔던 미디어 교육의 기초를 유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정보의 홍수에 대응하는 비판의식을 기르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는 방송 심의의 3대 핵심 범주이며, 방송위원회(CSA)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산업에 엄격한 심의와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기조는 공교육을 통한 미디어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진화하는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CLEMI는 2013년부터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교육은 크게 학생교육과 교사 대상의 교육으로 나뉜다. 학생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Table 1[12] 과 같이 미디어 및 정보의 기능, 윤리, 비판적 평가, 활용 기술 교육 등의 핵심역량을 천명하고 있다. CLEMI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콩쿠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행사는 1989년부터 매년 봄에 열리는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미디어를 분석하고 제작함으로써 시민 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 '정보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테마로 하여 '저널리즘 이해하기', '정보 생산하기', '정보·거짓 정보의 구분', '정보·광고의 구분'이라는 4 가지 소주제로 진행되었다[13].

Table 1. The Key Elements of Media and Information Education

Control of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finition and formulation of information needs</li> <li>■ Loca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li> <li>■ Evaluation of the information</li> <li>■ Organization of information</li> <li>■ Ethical use of information</li> <li>■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li> <li>■ Use of ICT skills for information processing</li> </ul>
Media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ing of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media in democratic societies</li> <li>■ Understand the conditions in which the media perform their functions</li> <li>■ Critical evaluation of media content in the light of mediatic functions</li> <li>■ Use of the media for self-expression and democratic participation</li> <li>■ Evaluation of skills (including ICT) needed to produce content as a user</li> </ul>

CLEMI는 학교 교사들에게 미디어 세계, 미디어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 뉴미디어와 기술 등 미디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 교재 및 교구를 제작, 보급하

고 있다. 그러나 CLEMI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미디어 교육자의 발굴 및 양성이다. CLEMI는 다양한 단위와 유형의 교사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커리큘럼의 기본 개요는 Table 2[12]와 같이 미디어와 정보에 관한 지식 습득, 평가, 제작 및 활용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CLEMI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교육의 철학적 전통과 가치를 따르고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가속화되고 있는 신문·방송·인터넷·모바일 등의 미디어 간의 융합인 트랜스미디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적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able 2. The Curriculum Framework of Media and Information Education for Teachers (reconstruction)

Key areas of the program	Knowledge of media and information for democratic debate	Media and information evaluation	Production and use of media and information
Politics and vision	Training of educated teachers in media and information	Student education in media and information	Foster media and information-educated societies
Program and evaluation	Knowledge of the media, libraries, archives and other information providers, their functions and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ir operation.	Understanding the criteria for evaluating media texts and sources of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ills to discover how mediatexts and information are produced</li> <li>■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information production</li> <li>■ Use by citizens</li> <li>■ And for what purpose</li> </ul>
Media and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int media: newspapers and magazines</li> <li>■ Information disseminators: libraries, archives, museums, books, journals, etc.</li> </ul>	Disseminators: radio and television	New media: Internet, social networks, distribution platform (computers, mobile phones, etc.).

정부 차원의 미디어와 정보 교육에 대한 노력은 비단 공교육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민 교육에서도 확인된다. 프랑스는 2015년 '디지털 에이전시 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사회에 즈음하여 학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에 접근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7].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전역에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문화공간(ECM)’은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멀티미디어 문화공간은 예술적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정보커뮤니케이션 뉴테크놀로지(NTIC)를 교육하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초 일반 시민들의 디지털 단절을 줄이기 위해 구상했지만 디지털 문화에 접근하는 수단이자 멀티미디어 제작 등 표현과 창조의 도구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5].

#### 4. 결론 및 시사점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의 오랜 역사와 전통은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방증한다. 그것은 미디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일관되게 고수해온 민중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함양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유네스코 및 유럽연합의 미디어 교육의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 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의 방법론은 정보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로 전이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의 지향점에 동조하고 있다 [14]. 일례로, CLEMI가 주관하는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은 각국의 관련 기관과의 공조로 해외의 미디어 교육 종사자 및 언론사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CLEMI의 정책과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들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적극 수용되거나 소개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미디어 교육은 철학적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몰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미디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의 진화를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고전적인 미디어 교육에 머물지 않고 ‘정보’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교육 법제, 공교육 프로그램, 교육 전달기구 등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아직까지 미디어 교육 관련 법체계가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추진 의지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일관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각 기관에서 협력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미디어 교육의 사례는 시사하는 점들이 많다. 프랑스 공교육 내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일관된 교육적 철학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전달부서를 운영하는 형태로써, 공교육의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도 각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능동적인 협력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미디어와 정보가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컴퓨터, 비디오 및 오디오 장비, 전자출판 등 하드웨어 확충에 급급하며 미디어를 도구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교육 현실에 비춰볼 때, 학생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길러주기 위한 미디어와 정보 교육에 관한 교육적 철학의 확립, 법제의 정비, 허브 역할을 수행할 전달기구의 마련, 미디어 교육과정 수립, 교사 양성 등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구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REFERENCES

- [1] S. H. Nam. (2012). The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Foreign Culture by Digital Multimedia Cont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 59–66.
- [2] S. O. Jang & H. S. Jeon. (2015). A Study on the Condition of Prevention System and Convergence Policy for Smart Media Addi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8), 33–41.  
DOI : 10.14400/JDC.2015.13.8.33
- [3] M. J. Jin. (2017, December). News Literacy Education in France. *Media Literacy*, 3, 18–21.
- [4] J. S. Park. (2006). L'Éducation aux Médias et Espace Multimédia en France. *Revue d'Études Franco-coreennes*, 36, 253–276.
- [5] C. S. Hwang & J. S. Park. (2013). *Media Center Network Setting*. Seoul : Korea Press Foundation.
- [6] J. S. Kang. (2018, November). Perceptions of Legal System and Policy Organization Activities in Domestic Media Education.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on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pp. 201–216). Seoul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7] J. S. Kang, J. H. Cho, S. Y. Jung & S. W. Park. (2017). *Study on the Legal System and Policy Organization of Overseas Media Education*. Seoul : Korea Press Foundation.
- [8] I. F. Dumez. (2017, March–April). Les Nouveau Enjeux du Clemi. *Les Cahiers Pédagogiques*, 536, 43–44.
- [9] Y. S. Lee & J. W. Cho. (2019).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oftware Education Based on Problem-solving Learning.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49-54.

DOI : 10.22156/CS4SMB.2019.9.2.049

- [10] J. I. Kim. (2018). A Study of Class Design for Liberal arts computer Convergence class using cognitive apprentice theor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153-160.  
DOI : 10.22156/CS4SMB.2018.8.1.153
- [11] S. H. Woo. (2014). A Study on the Plan of Creating Jobs for Women in the ICT Industr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4(2), 19-24.
- [12] C. Wilson, A. Grizzle, R. Tuazon, K. Akyempong & C. K. Cheung. (2012). *Éducation aux médias et à l'information : Programme de formation pour les enseignants*. Paris : l'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éducation, la science et la culture.
- [13] M. J. Jin. (2018, August). Looking into CLEMI's '2018 Press Week' in France. *Media Literacy*, 5, 90-95.
- [14] E. Bevort. (2008). Le Clemi, étude de cas d'une éducation aux médias à la française. *Revista Portuguesa de Pedagogia*, 42(3), 23-35.

이희승(Hee-Seung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 1996년 6월 :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영화학과(영화학석사)
- 2001년 10월 :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영화학과(예술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화이론, 매체학
- E-Mail : cinelog@tu.ac.kr